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6월 24일(월) 총 3매		세계 10대 도시 인천
담당 부서	국제교류증진과	담 당 자	• 미주유럽팀장 김은진 ☎440-3241 • 담당자 신소정 ☎440-324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N 100여 회원국,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알려

- UN공공행정포럼 24~26일 송도서 개최 -  
 - 정책견학 및 디지털플랫폼 전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인천광역시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와 UN이 공동 주최한다.

매년 유엔 공공행정의 날(6월 23일)에 열리는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각국의 선진행정을 공유해 회원국의 행정 혁신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행정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행사다.

2019년 아제르바이잔 포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5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2014년 고양 포럼 이후 10년 만이다.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을 주제로 유엔 회원국 정부·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전문가, 일반 참가자 등 100여 국 2천여 명이 참가

하면, 포럼 기간 중 인천시는 환영오찬, 전시관 1개 부스 운영(24~26일), 정책 견학(25일)을 실시한다.

첫날인 6월 24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약 두 시간 동안 송도 경원재 엠버서더에서 UN 회원국 정부 장관급 인사, 주한공관장, 국제기구 고위직 인사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환영 오찬을 개최하며 글로벌파트너십을 다졌다.

유정복 시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이자 글로벌 톱텐 시티로 나아가는 인천을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의 선진행정을 공유해 회원국의 행정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부대행사(그랜드볼룸 C홀)로 운영되는 ‘데이터 혁신 서비스 홍보 전시관’에서 데이터 혁신 서비스 부스를 설치하고 인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및 시민체감 실증서비스(블록체인 분산신원인증(DID) 기반 섬패스, 에코허브 플랫폼, 지식재산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의료지원서비스, 인천데이터허브시스템 등 인천시의 블록체인·인공지능(AI)·빅데이터 관련 추진 정책 및 서비스를 각국 대표들에게 홍보한다.

특히 6월 25일에는 포럼 참가 외국인 중 1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 분야 5개 조의 프로그램으로 정책견학을 운영한다. ▲디지털·산업 분야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견학하고 ▲환경·에너지 분야는 송도 자원순환센터에

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과정 등을 둘러보며 ▲문화·체험 분야는 인천도호부관아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전통문화 및 놀이를 체험하며, 인천의 발전과 역사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